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아' 추가 모집...19일~25일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김제형 일자리 제공김제시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아(Aria)' 추가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민간취업연계형 '아리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관내 사회경제적 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하여 9개 기관에서 일할 참여자 9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된 인원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하게 된다.

지원 자격으로는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담당(☎540-3338, 3995)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 분야의 전공 및 경험이 있는 우수한 청년들을 사업장에 배치시키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아리아' 사업은 청년 참여자와 사업장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실제 취업에 연계한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창업 등 기본 교육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자기계발 교육비를 지원해 사업 종료 후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저 출산 극복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난임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하여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30이하의 가정이었지만 2019년도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인공수정 3회씩 총 10회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 포함해 최대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난임부부지원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시술 의뢰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 국제 쌀포럼' 개최

김제시, 9월30일~10월2일까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대한민국의 쌀산업의 현황과 김제 지평선쌀의 위치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학술회의를 하고 쌀 관련 제품 등을 전시·홍보하는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을 올해 9월30일부터 10월2일(3일간)까지 지평선축제기간 동안에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및 국내 쌀 전문가들이 참석

하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쌀 품질개선 및 활용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고하고 김제쌀의 브랜드 향상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 쌀포럼은 지평선쌀의 가치 창출과 실질적인 계약 등의 성과 견인을 위해 쌀 관련 외국 바이어들과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지평

선쌀을 비롯한 김제시 농산물 및 가공품 등의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내외 쌀 전문가들이 모여 쌀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시장다변화에 맞춰 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김제시가 쌀산업의 선두주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완주군, 구이·이서·소양·상관면 거주 농업인... 22일까지

완주군이 농식품 가공 참가자를 모집,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완주군은 새로운 가공창업자 확대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2019년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12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모집하며, 교육은 구이 가공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구이면·이서면·소양면·상관면 거주 농업인으로 30명 내외이며, 교육과정은 △반찬가공반 △습식가공반 △건식가공반 3개 과정이다.

총 48회로 과정별로는 16회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이다.

고산 6개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고산가공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교육수로 후에는 가공센터 가공장비를 활용해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2년도부터 가공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2개소의 로컬푸드 가공센터(구이면, 고산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가공공동체

에 186명이 참여해 235개 제품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이 연간 1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교육도 병행 추진해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가공아카데미가 지속 가능한 완주군 푸드플랜 추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290-3206)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광활의 명품 햇감자가 은파리 박병렬 농가를 시작으로 5월말까지 수확한다.

김제시 광활면 '햇감자' 수확 시작

오염되지 않은 간척지 토양·풍부한 미네랄·당도 ↑

김제 광활의 명품 햇감자가 18일 은파리 박병렬 농가를 시작으로 5월말까지 수확할 예정이다.

광활감자는 240여 농가가 520ha를 재배하여 전국 불감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가락동 시장 등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작년에는 감자가격이 높아 20kg 한 상자에 평균 10만원의 출적 넘었으나 예년 평균가격은 5~6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활 햇감자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이유는 이 지역이 바다를 막아 만든 논오염되지 않은 간척지 토양에다 풍부한 미네랄,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감자생육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어 감자의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포실포실한 밥맛이 나서 껍떡은 감자로 단연 으뜸을 자랑하고 있다.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4월 20일 제12회 광활햇감자축제를 광활초등학교에서 초창기수 공영, 마을대학 장기자랑과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리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감자짜글이, 감자피자, 감자모닝 샌드위치 등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도매가보다 5~10% 정도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원생 등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호미로 캐고 박스에 담은 감자수확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명호 광활면장은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좋은 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교육 실시

완주군이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은 주민자율형 안전문화운동 정착 및 위험상황 대처훈련을 위해 '2019년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교육'을 관내 125개 마을 주민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가스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전의 전 분야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지진대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 시청과 생활 속 안전상식 등을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완주군은 2관내 125개 마을 주민대상으로 019년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교육 완료 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면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경작지 토양 검정 실시 큰 호응

완주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경작지 토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 검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 시작 전에 경작지 토양의 각종 비료 성분을 수치로 정확히 알아 볼 수 있는 토양검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질소, 인산, 가리 등 작물의 필수영양소와 pH(산도), EC(전기전도도) 등 논밭 토양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농사를 지을 때 비료살포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토양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내의 질소, 인산, 가리과 산도, 염농도 등 농사에 필요

한 중요 8개 성분과 식물체, 축분액비,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장비가 구비돼 농업인의 과학 영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양, 식물체, 액비, 중금속 등 총 4000여건을 분석해 토양의 지속적인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고, 적정량 시비를 통한 토양 및 농업용수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군은 농업인이 작물 정식 전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신속히 분석해 '토양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작물별·시기별로 퇴비나 비료 투입량까지 컨설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양과 수질보호는 물론 자연스럽게 환경보전형 농업을 유도하며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